

(주)테크데이터 주최

VTX SERIES A12 Demo Day

by 정형우 기자 repwoo@naver.com photos by 김용일 팀장 waxe1018@hotmail.com

지난 1월 23일, 강남구에 위치한 SAC 아트센터에서 'VTX SERIES A12 Demo Day'가 진행됐다. (주)테크데이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JBL VTX 시리즈 최신 모델인 A12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인 정보전달이 이뤄졌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씩 반복되는 세미나 형태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인지 올 겨울 들어 가장 한파가 이어지는 날짜에도 많은 인원들이 행사장에 모습을 비취 JBL VTX A12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Introduction to VTX A12

첫 번째 세션은 VTX A12를 이론적으로 소개하는 자리 'Introduction to VTX A12'였다. 프레젠테이션은 Harman Senior Director of Sales를 맡고 있는 로드니 휴스턴(Rodney Houston)이 진행했고 테크데이터 최승우 대리가 통역을 맡았다. 로드니 휴스턴은 "A12는 3개의 하이 드라이버, 4개의 5.5인치 미드 레인지 유닛, 12인치 우퍼 2개 등 총 9개의 유닛을 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VTX A12는 웨이브가이드와 같은 의미의 RBI가 새롭게 디자인 됐다. 중앙에 고역 드라이버가, 그 바깥으로 중저역 유닛이 배치돼 있는데 RBI는 기존의 VTX 시리즈와 달리 우퍼 앞까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연장엔 A12가 L/R 8통씩 리깅됐고 서브우퍼는 G28이 3통씩 3포인트,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설치됐다. 시운드 데모는 처음 3곡은 서브우퍼 없이 A12만으로만 재생되고 나머지 곡들은 서브우퍼까지 재생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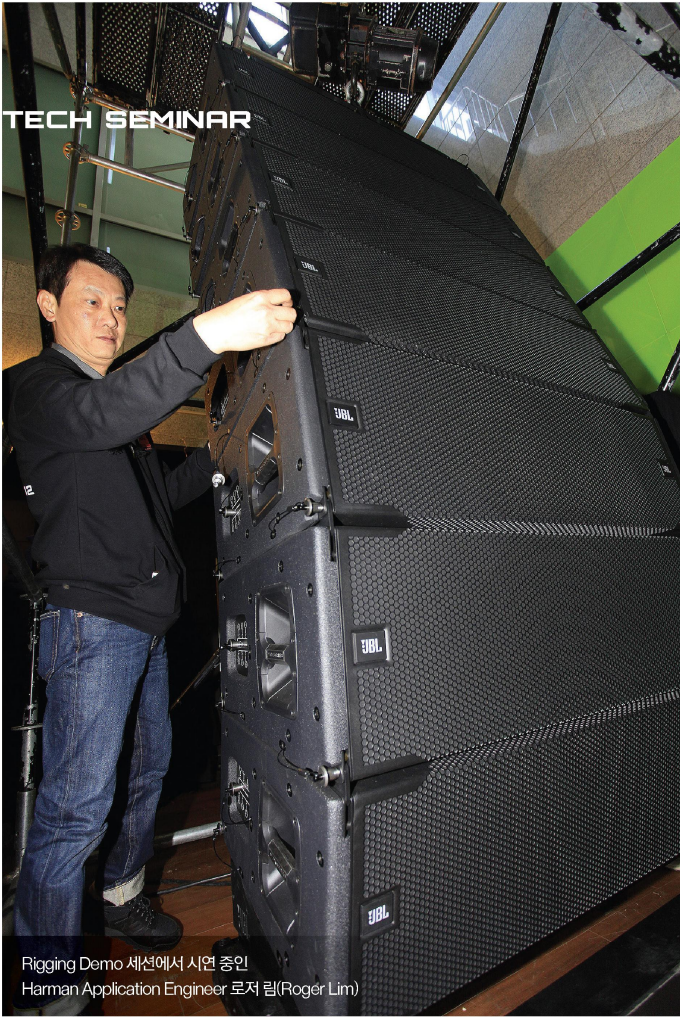


첫 번째 세션인 Introduction to VTX A12에서 설명중인 Harman Senior Director of Sales 로드니 휴스턴(Rodney Houston)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씩 반복되는 세미나 형태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로드니 휴스턴은 “A12와 함께 A12W도 출시됐다”며 “A12는 수평 커버리지가 90도인데 반해 A12W는 120도의 수평 커버리지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A12 밑에 A12W를 다운필로 붙여서 더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로드니 휴스턴은 “개발단계에서 경쟁사 스피커들과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L사와 D사의 같은 급 스피커와 비교하며 얻은 데이터 시트를 보여주며 A12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변화된 리깅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소 0.25도, 최대 10도까지 꺾이며, 어레이 프레임 하나에 24개까지 어레이할 수 있다”고 말한 로드니 휴스턴은 “24개를 어레이 할 수 있는데도 41kg밖에 되지 않는다. L사의 것이 60kg, D사의 것이 65kg 나가는 것에 비해 굉장히 경량화 된 만큼 진보된 리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서스펜션 바라는 더 작은 부품을 통해 18통을 어레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로드니 휴스턴은 “돌리도 새로 출시됐다”며 “트럭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되어 더 많은 적재가 가능하고 스피커를 빼고난 뒤 나오는 뚜껑을 돌리와 합쳐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라운드 스택 시 돌리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며 “옵션인 그라운드 스택 아웃 트리거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엔 돌리 위에 A12가 있는 상태로 꺾거나 눕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로드니 휴스턴은 “스피커와 앰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한다”며 “A12를 구성하기 위해선 VRack을 사용하는 게 맞다. 2채널 12000, 4채널 3500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VRack은 전기와 네트워크 사용이 용이한 애플랙으로서 DSP같은 경우는 BSS OMNIDRIVE를 채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장 DSP가 필요 없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한 편의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컨트롤과 모니터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라인 어레이 칼큘레이터(Line Array Calculator), 어

레이 링크(Array Link), 퍼포먼스 매니저(Performance Manager)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로드니 휴스턴은 “라인 어레이 칼큘레이터는 예측 소프트웨어”라며 “공간을 실측해 정보를 넣고 스피커 개수, 커버리지를 선택하면 예측되고 각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어레이 링크라는 앱으로 전송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각도, 모터 포인트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매니저를 통해 DSP에 연결하면 튜닝과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게끔 3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A12 전용 서버우퍼 개발 예정이 없다는 질문에 로드니 휴스턴은 “12인치 플러그십 정도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공간 사이즈는 앞뒤로 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라운드 스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굳이 위아래로 달아야 하는 전용 서버를 계획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앰프에 대한 질문에 “4x3500을 A12에 더 권장한다”며 “A12는 효율이 더 높아져서 저출력 앰프에서도 충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igging Demo 세션에서 시연 중인
Harman Application Engineer 로저 림(Roger Lim)



편안한 각도조절을 위한 락킹 매커니즘은 A12만의 특징으로서
락을 풀어줘야 각을 돌 수 있다



모터로 아레이 프레임을 내리는 시연중이다. 내리면서 탑에 있는
홈에 맞추면 자동으로 끼워지는 편리함이 돋보인다

VTX A12 Rigging Demo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두 번째 세션인 'VTX A12 Rigging Demo'를 위해 이동한 자리엔 트러스와 A12 4통이 아레이 프레임에 리깅돼 있었다. 설명과 시연은 Harman Application Engineer 로저 림(Roger Lim)이, 통역과 시연은 테크데이터 기술연구소 박종호 과장이 맡았다. 로저 림은 "현재 보고 있는 걸 트랜스포터라고 한다. 이동할 때는 항상 돌리 위에 스피커 네 개를 적재한다"며 "체결 후 탑을 씌운 상태로 차량에 적재하며, 그대로 그라운드 스택하려면 그라운드 스택 아웃 트리거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로저 림은 리깅 데모를 위해 탑 커버를 분리한 뒤 4개의 핀 포인트를 분리했다. 그는 "아레이 프레임은 A12 스피커 시스템 설계에 맞춰 제작됐다"며 "아레이 프레임에 체결돼 있는 익스텐션 바를 통해 샤클을 체결하고 모터에 연결시켜 놓았다"고 설명했다. 시연장에는 듀얼 포인트로 체결된 상태였는데 "싱글 포인트도 가능하며, 익스텐션 바를 2개로 확장하여 쿼드 포인트로 리깅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리깅 시연을 시작했다. 로저 림은 "모터로 아레이 프레임을 내려 탑에 있는 홈에 맞추면 자동으로 끼워진다"며 "내려온

상태에서 핀만 연결해주면 되고 맨 윗통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바깥보다 안쪽에서 끼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항상 프론트부터 체결한 다음 리어 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앱인 아레이 링크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아레이 링크가 있으면 스피커 시스템을 설계, 구성, 세팅 후 세팅 값을 보기 위해 현장에 컴퓨터나 종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며 "설계한 스피커 개수가 많아지면 리깅하면서 몇도를 설정했는지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레이 링크를 통해 각도 맞춘 스피커를 체크하며 작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리깅 시연을 이었다. "리깅 시스템이 그대로 트랜스포터를 옮겨서 각도를 맞추게 되는데 스피커를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서 맞추는 게 아



Sound Demo 세션 설명을 맡은 Harman Director of Global Business Development의 브라이언 피커워츠(Brian Pickowitz)



그릴이 벗겨진 VTX A12 오른쪽에 RBI가 덮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TX A12는 웨이브가이드와 같은 의미의 RBI가 새롭게 디자인 됐다. 중앙에 고역 드라이버가, 그 바깥으로 중저역 유닛이 배치돼 있는데 RBI는 기존의 VTX 시리즈와 달리 우퍼 앞까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니라 이 상태에서 칼큘레이터에 설정된 프리셋 각도대로 올려주면 된다"고 말한 로저 림은 "핀만 옮겨 준 다음 모터를 올리면 각도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전했다. 모터를 올리기 전 가장 밀 통 체결을 위해서 돌리를 분리하면서 그는 "항상 앞부분 핀을 먼저 제거한 다음 바퀴를 바닥에 착지 시키고 뒷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터를 올린 뒤 "역시 밀에 통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정된 각에 맞춰서 핀을 옮겨준다"며 "핀 홀의 각도를 보면 기울어져 있다. 이 상태로 내려서 체결하다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핀과 핀 사이의 수평을 맞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터를 내리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홀이 자동으로 맞춰졌다. 밀에 트랜스포터가 체결된 것인데 이대로 모터를 올리니 리깅이 완료됐다. 로저 림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A12 스피커 시스템이 리깅될 수 있는지 봤다"며 "이제 리깅과 마찬가지로 리깅 해체를 얼마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면서 해체 시연을 시작했다. 그는 "스피커 뒤쪽에 있는 빨간 바를 락킹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락킹을 풀어줘야 각이 풀린다"며 "각이 풀린 상태에서 모터를 내리면 자동으로 10도로 맞춰지는데 10도는 이 스피커를 이동할 수 있는 각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락을 안 풀어주면 각도 풀리지 않는다"며 "각을 다 풀 뒤에는 다시 락킹을 잠궈 주고 이동 포인트로 핀만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해체 시연 뒤 A12만의 특별한 점에 대한 설명도 이었다. 박종호 과장은 "다른 스피커의 경우 핀에 달린 와이어가 체결하는 홀에 따라 꼬임이 잦아지며 끊어지거나 와이어가 풀려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었다"며 "하지만 A12의 와이어엔 볼 베어링을 채용해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려도 다른 모델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내구성을 높였고 안정성 또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안한 각도

조절을 위한 락킹 메커니즘 또한 A12만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VTX A12 Sound Demo

마지막 세션은 A12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Sound Demo'였다. 시연장엔 A12가 L/R 8통씩 리깅됐고 서브우퍼는 G28이 3통씩 3포인트,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설치됐다. 이번 세션은 Harman Director of Global Business Development의 브라이언 피커워츠(Brian Pickowitz)가 설명을 맡았으며, 테크데이터 박은희 과장이 통역을 맡아 진행했다. 사운드 데모 전, 전 세션에서 설명으로 들었던 라인 어레이 칼큘레이터(Line Array Calculator), 어레이 링크(Array Link), 퍼포먼스 매니저(Performance Manager)를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을 들은 뒤 사운드 데모가 시작됐는데 처음 3곡은 서브우퍼 없이 A12만으로만 재생되고 나머지 곡들은 서브우퍼까지 재생되게 하여 A12의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